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5일·이하 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 근대역사 문화의 보고(寶庫)인 남구 양림동 일대를 전시공간으로 삼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의 근대건축물이 2009 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수피아여고 내 커티스메모리얼홀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 명소’ 이번엔 양림동이 뜬다

또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개성 강한 큐레이터 15명이 참여해 장흥 백련사의 소리를 하나의 디자인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최근 은병수 총감독과 15명의 큐레이터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 기획자 회의를 열고 기본 전시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광주지역 디자인 기업인 인스나인 박유복 소장이 선보이는 ‘어울림’전이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의(衣)’, ‘식(食)’, ‘주(住)’, ‘학(學)’, ‘락(樂)’ 색선의 주제전과 ‘살림’, ‘살림’ ‘어울림’ 등의 프로젝트 전시가 마련되는데 ‘어울림’은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길거리 전시이다.

수피아여고 내 커티스메모리얼홀(배유지 기념예배당·문화재청

선교사 사택 등 근대건축물서 전시  
山寺의 소리까지 디자인 작품으로

등복문화재 제159호), 제중병원장을 역임한 우월순 선교사 사택 등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근대 건축문화의 대표작으로 1899년에 지어진 이장우 가옥(광주시 지정 민속자료 1호), 1920년에 지어진 최승효 고택(시 지정 민속자료 2호), 수피아여고 수피아홀(등복문화재 제158호) 등에서도 전시가 펼쳐진다.

선교사 사택과 수피아홀에서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 명품 브랜드를 소개하고, 판매하게 된다. 고택에서는 남도 지역민들이 즐겨 사

용한 일상 용품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이밖에 소리, 한글 등 우리 민족의 문화 원형을 재해석한 전시도 눈에 띈다.

‘락’ 색선의 큐레이터인 악담이반의 김영일 대표는 ‘사운드 오브 광주’를 주제로 남도의 현장을 들려준다. 오는 5월 백련사에서 국악을 녹음한 뒤 비엔날레 전시장에 SACD(super audio compact disc) 스튜디오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소리를 들려준다.

SACD는 CD의 재생 한계를 넘어서 연주회장의 공기까지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다는 평을 받는 신기술이다.

또 영화음악 장영규, 게임음악 임지훈, 창작음악 이태원씨 등 국내 대표적인 음악가들이 각자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각 분야의 다양한 음악을 함께 선보인다.

‘학’ 색선의 큐레이터인 한재준 서울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는 세계 각국의 글자를 다양한 서체로 디자인 한 작품을 선보인다. 훈민정음해례본의 글자 디자인과 세계 각국의 글꼴을 전시한다. 또 아름다운 글씨 공모전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양림동 근대 문화유산의 안전성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구체적인 기획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미술대전’ 작품 공모

광주시는 ‘제22회 광주 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한다.

한국미술 광주지회와 주관하는 이번 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판화, 문헌화, 디자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접수한다.

오는 5월 11~12일 이틀간 작품을 접수하며, 같은 달 14일 심사를 거쳐 15일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화 서양화는 오는 4월 29~30일 작품 사진을

미술협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하고,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작품을 접수 받는다. 출품료는 1점당 5만원.

출품원서는 오는 5월 10일까지 광주시미술, 지역 각 미술대학 등 7곳에서 교부한다. 입상작 시상식은 6월 5일, 입상작은 같은 달 5~10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222-8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당운영 사업 워크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9~20일 광주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전당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전당운영 체계 구축 사업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에

술극장, 문화창조원, 어린이지식문화원 등 전당에 들어설 공간들의 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한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당 운영 체계 구축사업에는 한국외국어대, 전남대, (주)시민문화트윅티파트, (주)메타기획 컨설팅 등이 참여, 8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704-3432.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토요일엔 ‘문화나들이’ 떠나볼까

‘토요일에 떠나는 문화여행’. 대인시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트마켓’이 열리고 사직공원에서는 둘째·넷째 토요일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대인시장 ‘아트마켓’ 예술의 문 활짝

입주자가 예술품·공예품 판매

예술시장으로 알려진 대인시장은 ‘아트마켓’으로 새롭게 ‘예술의 문’을 활짝 연다.

21일 첫 자리를 여는 ‘아트마켓’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70여개의 좌판을 열고,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 입주 작가와 외부 작가 등의 예술품, 공예품을 베품시장 형태로 판매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아트마켓 외곽과글에 이어 침체에 빠진 시장에 자극과 생기를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좌판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 시장 내 광서약국 4거리에서는 모던락 ‘한강의 기적’과 퓨전 국악팀 ‘루트머지’(대표 홍윤진)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근 문을 연 북카페와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도 공개한다.

‘문화터미널’ 한 달 두 차례 상설공연

사직공원 광주영상예술센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제기 투합해 꾸린 ‘문화터미널’(대표 방극만)도 한달에 두 차례씩 상설공연을 갖는다.

오는 2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 11월까지 매주 둘째·넷째주 토요일 사직공원에 위치한 광주영상예술센터(옛 KBS 광주방송총국) 상영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크로스오버 앙상블 ‘허브’를 중심으로 재즈, 클래식, 록 등 다양한 공연 단체들이 합류했다.

21일 첫 공연 때는 재즈 그룹 ‘A-트리오’와 다양한 스타일의 보컬리스트로 구성된 ‘Space ship’이 공연을 갖는다. 28일에는 퓨전 재즈 밴드 ‘Delicious’

(사진)와 모드 뮤직아카데미 강사로 구성된 보컬 프로젝트 그룹 ‘mosound’가 무대에 선다.

공연 실황은 영상으로도 제작된다. 문화터미널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조유석씨가 문화 TV와 함께 공연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 지역 문화 콘텐츠로 구축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5천원. 문의 062-675-402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5인 5색’ 춤의 향연

광주시립무용단 ‘모던발레 페스티벌’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진행하는 ‘모던발레 페스티벌’이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중견 시립무용단원 5명이 안무자로 참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춤의 색깔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국희씨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부활 프로젝트 2009’를 무대에 올리며 공명태씨는 2009년을 살아가는 한 가정을 소재로 삼은 ‘손톱 밑의 가시’를 선보인다.

또 박선희씨는 인간의 다양한

클래식&재즈 콘서트  
20일 광주서구문화센터

광주서구문화센터가 준비한 ‘클래식 & 재즈 콘서트’가 20일 오후 7시 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마음에 담은 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에사람 챔버오케스트라’가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흐르는 눈물’, ‘라 트리아비타’ 중 ‘축배의 노래’,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을 선사한다.

2부에서는 호남신학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창단된 토너 재즈 밴드가 출연, 나탈리 콜의 ‘love’, 로라 피기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등을 들려준다. 무료 관람. 문의 062-654-430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p><b>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b> 구.관동국사거리 ♥애매1544-0600</p> <p>1관 <b>슬럼독 밀리어너</b> (최고급관)</p> <p>2관 <b>푸시</b> (15세)</p> <p>3관 <b>작전</b> (18세)/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세)</p> <p>4관 <b>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b> (15세)</p> <p>5관 <b>13일의 금요일</b> (18세)</p> <p>6관 <b>뉴욕은 언제나 사랑중</b> (15세)/<b>왓치맨</b> (18세)</p> <p>7관 <b>그랜 토리노</b> (12세)</p> <p>8관 <b>실종</b> (18세)</p> <p>9관 <b>워닝소리</b> (전세)</p>	<p><b>영화관</b></p> <p><b>콜롬버스 시네마</b></p> <p>1관 <b>푸시</b> (15세)</p> <p>2관 <b>13일의 금요일</b> (18세)</p> <p>3관 <b>작전</b> (18세)/<b>왓치맨</b> (18세)</p> <p>4관 <b>슬럼독 밀리어너</b> (15세)</p> <p>5관 <b>워닝소리</b> (전세)</p> <p>6관 <b>실종</b> (18세)</p> <p>7관 <b>드래곤볼 에블루션</b> (전세)</p> <p>8관 <b>뉴욕은 언제나 사랑중</b> (15세)</p> <p>9관 <b>드래곤볼 에블루션</b> (전세)</p> <p>10관 <b>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b> (15세)</p>	<p><b>영화관</b></p> <p><b>하미 시네마</b></p> <p>1관 <b>뉴욕은 언제나 사랑중</b> (15세)</p> <p>2관 <b>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b> (15세)</p> <p>3관 <b>작전</b> (18세)</p> <p>4관 <b>워닝소리</b> (전세)</p> <p>5관 <b>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b> (15세)</p> <p>6관 <b>과속스캔들</b> (12세)</p> <p>7관 <b>몬스터</b> (12세)</p> <p>8관 <b>드래곤볼 에블루션</b> (전세)</p> <p>9관 <b>푸시</b> (15세)</p> <p>10관 <b>실종</b> (18세)</p>	<p><b>영화관</b></p> <p><b>엔터 시네마</b></p> <p>1관 <b>구세주2</b> (15세)</p> <p>2관 <b>언데드</b> (15세)</p> <p>3관 <b>왓치맨</b> (18세)</p> <p>4관 <b>작전</b> (18세)/<b>핸드폰</b> (전세)</p> <p>5관 <b>드래곤볼 에블루션</b> (전세)</p> <p>6관 <b>문프린세스-문예이커의비밀</b> (전세)</p> <p>7관 <b>적벽대전2-최후의결전</b> (15세)</p>	<p><b>영화관</b></p> <p><b>씨너스 전대</b></p> <p>1관 <b>슬럼독 밀리어너</b> (15세)</p> <p>2관 <b>드래곤볼 에블루션</b> (전세)</p> <p>3관 <b>뉴욕은 언제나 사랑중</b> (15세)</p> <p>4관 <b>푸시</b> (15세)</p> <p>5관 <b>워닝소리</b> (전세)/<b>왓치맨</b> (18세)</p> <p>6관 <b>작전</b> (18세)/<b>벤자민버튼의시간은가꾸로간다</b> (12세)</p> <p>7관 <b>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b> (15세)</p> <p>8관 <b>실종</b> (18세)</p>	<p><b>영화관</b></p> <p><b>제일 시네마</b></p> <p>1관 <b>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b> (15세)</p> <p>2관 <b>13일의 금요일</b> (18세)</p> <p>3관 <b>왓치맨</b> (18세)</p> <p>4관 <b>드래곤볼 에블루션</b> (전세)</p> <p>5관 <b>작전</b> (18세)/<b>벤자민버튼의시간은가꾸로간다</b> (12세)</p> <p>6관 <b>언데드</b> (15세)/<b>프로스트VS닉슨</b> (12세)</p>
---	---	---	---	--	---